

제 3 장

무죄 경륜

서로 다른 경륜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최초의 현장으로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수천 년 전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1.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A.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창세기 1장 26-27절은 사람의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형상은 대부분의 동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21절을 보기 바랍니다. 로마제국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이 동전을 들여다 볼 때 그들은 누구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동전에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까? 누구 얼굴입니까? 만원짜리 지폐에는 누구의 모양과 형상이 있습니까?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 볼 때 누구의 형상이 보입니까? 거울이 당신의 모습을 반영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형상은 거울 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6-27절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무였습니다. 아담은 거울 즉 하나님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비춰 주는 거울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권한이 주어졌습니다(창1:26). 하나님은 아담을 땅에 있는 ‘만물의 왕’(사자가 아님)으로 만드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복이 아담과 이브에게 임하였습니다(창1:28).

B. 하나님은 죄인을 만들지 않는다

창조의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모든 것(아담도 포함)을 보시니 그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창1:31).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죄인을 지으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은 창조된 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안에 악한 마음을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무죄하였습니다.

‘무죄하다’ 혹은 ‘천진난만하다’는 말은 ‘죄로부터 자유하다’, ‘죄가 없다’, ‘잘못되지 않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처음에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슨 범범이나 죄를 범하지 않았기에 ‘무죄’였습니다. 전에 아담은 결코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은 지금의 사람들 같이 악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즉 악과 친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한단 해도 사실 그것은 진리입니다(요일1:8과 비교). 또 그는 “나는 죄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요일1:10과 비교).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면 우리도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죄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웠고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또한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만한 죄가 그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사59:2와 비교).

아담은 완전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세상은 오늘날과 같이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살았던 세상에 범죄가 있었습니까? 질병이 있었습니까? 죽음, 가난이 있었습니까? 아담이 살았던 세상은 현 세상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한 가지 선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마귀’였습니다(창3:1; 계12:9). 사실 마귀도 처음에는 선한 존재였으나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불법’을 마음속에 품은 이후로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2. 사람의 책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맡은 청지기직은 어떤 종류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손에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아담이 무엇을 해야 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는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아담은 에덴동산을 가꾸고 지킬 임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은 또한 아담이 받은 권리를 보여 줍니다. 아담이 받은 것은 모든 종류의 맛있는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아담은 사과나 오렌지나 복숭아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물에 거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종류의 과일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아담의 책임이 나옵니다. 그는 특별히 조심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매우 간단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의 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특별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창 2:9). 그것으로 하나님은 아담의 순종 여부를 간단히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아담아, 내 말에 순종하려느냐?”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 그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을 경우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 사람의 실패

아담이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을 어기고 타락하게 된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발견됩니다(창3:6).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명령을 어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담은 생명대신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디모테전서 2장 14절에 따르면 사탄에게 속은 것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까? 이브입니까? 이 말씀은 속은 장본인이 아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아담은 꾀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 그렇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죄에 빠졌으므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죄한 상태가 아닙니다.

4. 하나님의 심판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장 22-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를 취하여 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이브는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룹이라 불리는 천상의 피조물을 동산 동편에 두셔서 화염검으로 사람이 다시 이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5. 아담의 죄의 결과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마지막 두 단어는 “그가 먹으니라.”인데 이 두 단어는 세상을 통째로 바꾸어 버린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인류에게 일어난 어떤 재앙보다 더 혹독하고 광범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는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 중 몇몇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롬5:12).
2. 고되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창3:19).
3. 출산에 고통과 슬픔이 따랐다(창3:16).
4.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롬5:19).
5.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다(롬5:18).
6. 땅이 저주를 받았다(창3:17-18).

오늘날 우리는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죄인들로 북적대는 타락하고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두 단어로 구성된 창세기 3장 6절의 마지막 말씀의 결과입니다.

경찰, 의사, 판사, 군인, 목사, 선교사, 장의사, 형사, 생명보험 컨설턴트, 간호사 같은 직업을 살펴봅시다. 아담의 죄로 인해 결국 이런 직업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감옥, 장례식장, 묘지, 자동차의 안전장치, 병원 등도 아담의 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대인 관계 등을 보기 바랍니다, 사람의 타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니다.

아담의 죄가 인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냥 한 개비의 불씨가 떨어져도 숲은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롬5:12).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아담의 타락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끔찍한 결과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이로부터 수천 년 후 또 하나의 엄청난하고 광범위한 성격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롬5:19).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고전15:22).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망은 아담에게서 오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A. 손상된 형상

아담이 죄를 짓자 아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지고 손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표면의 형상이 닳아 없어진 동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죄도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을 나타내기는커녕 죄와 자아와 사탄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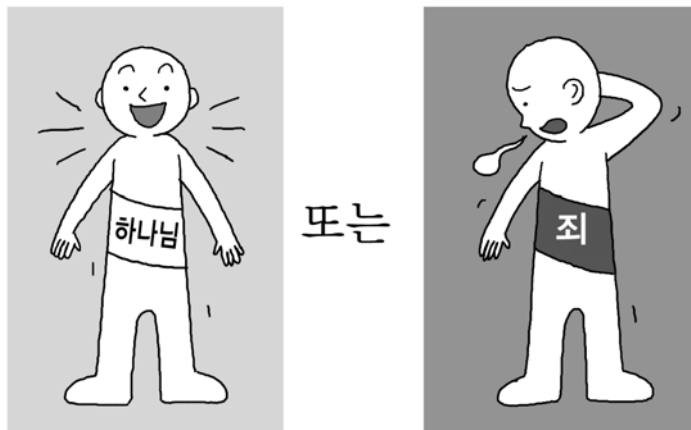
사람은 본래 무언가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 사람의 혼은 천진무구하고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보여 주며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 모든 것이 엄청나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혼은 죄 안에 있고 죄로 인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쁜 것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게 되면 그는 새 본성과 옛 본성을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엡 4:22-24). 따라서 구원자를 드러낼 수도 있고 죄와 자아와 사탄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둘 중 하나를 나타낸다.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타락 이후 아담은 출생을 통해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자녀들은 무엇을 드러내었을까요? 답은 창세기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창5:3).

셋은 누구의 거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담입니까? 만일 우리가 셋을 본다면 누구의 형상과 모양이 보이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 모두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이 죄와 자아와 사탄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 구원받지 못한 상태 -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 구원받은 상태(고후5:17) -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엡4:24; 골3:10).

B.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생명과 사망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신30:19).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무엇입니까(신30:19)?

아담의 결정은 나무 -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 에 달려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결정도 나무에 달려 있는데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나무입니다(벧전 2:24).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